

강진, 저출산·지방소멸 대응 정책 성공 모델 '우뚛'

국회 연구단체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현장 방문 전국 최고수준 육아수당·빈집 리모델링·푸소 등 주목

강진군의 저출산·지방소멸 대응정책이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국회 연구단체의 선도정책 현장 확인이 이어져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대표의원 김정재·백혜련)이 저출산·축소사회 문제에서 비롯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강진군 육아수당' 등 강진군만의 선도정책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군을 방문했다. 9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방문은 연구단체가 강진군 방문을 적극 요청해 추진됐다. 이는 국회에서도 강진군의 저출산·지방소멸 정책이 범정부적인 제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진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포럼과 강진군 간의 정책간담회는 의원들의 애정 어린, 때론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고 강진원 강진군수와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정성스런 답변이 계속됐다. 의원들의 주요 질문 내용은 전국 최고 수준의 강진군 육아수당, 빈집 리모델링, 푸소 운영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실제 사례였다. 의원들은 "7세까지 지급되는 육아수당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까지 이어져 인구소멸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지"를 비롯해 "현금성 육아수당 지원이 자칫 풍선효과가 아닌지", "군이 100% 부담하는 빈집 리모델링 개선 방안", "전국 선진 모델인 푸소 운영" 등을 물었다. 특히 강진군 도시민 유치, 인구감소



국회 연구단체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참여 의원들이 최근 강진군을 방문해 청년 입주, 푸소 농가 등의 현장을 둘러보며 지방소멸 선도 정책을 살펴봤다. <강진군 제공>

대응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과 육아수당, 푸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강진형 지방소멸 대응 패키지에 높은 평가를

이들은 500년 조선 육군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병영면에서 빈집 리모델링한 월세 1만원주택인 '강진

품에' 거주자 오픈저버드 디자이너 이자형 씨와 슬로우 라이프를 꿈꾸며 5년 전에 강진에 정착한 청년부부 장성현·관경진 씨,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강진 청년협동조합 편들', 여기에 푸소 농가 '솔나무안집' 서금덕 마을해설사 집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강진군의 정책에 연신 고개를 끄덕여왔다. 강진원 군수는 "군의 인구소멸 대응 전략은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정책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도 지역 경제와 인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연구단체의 이번 방문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진군의 다양한 정책 사례들이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진=정영록기자

영암 농특산물 활용, 대표 음식 개발 '눈길'

어란파스타·한우떡갈비 등 레시피 보급...미식 관광 활성화

영암군 영암읍에 퓨전양식, 한우떡갈비정식, 굴비정식 메뉴가 생겨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먹거리 콘텐츠 육성 종합계획'의 하나로 추진한 대표 음식이 개발돼, 3개 음식점에서 11월부터 손님을 맞고 있다. 음식점 경쟁력 강화, 미식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 대표 먹거리 레시피 개발이 결실을 맺었다. 판매에 돌입한 퓨전양식 4종, 퓨전한정식 2종은 영암 한우와 무화과, 대봉감, 어란 등 농·특산물을 재료로 만든 상차림이다. 먼저 '촌스토랑'에서는 토마토파스타, 어란버터파스타, 무화과 샐러드, 단호박 스프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 음식점은 영암군의 '빈상가 활용 청년창업주 육성' 사업과 연결돼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내놓고 있어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리법 개발에는 ㈜광지주가가 참여했다. '한국관'에서는 낙지숙회, 장어탕수육, 고구마 생채를 곁들인 한우떡갈비정식을 맛볼 수 있다. 박중현 전남농업문화연구원 요리연구가가 조리법 개발에 참여해 가성비 좋은 상차림을 마

련했다. '국일관'에서는 시원한 녹차물에 만 쌀밥에 감칠맛 뛰어난 생선살을 올려 먹는 굴비정식이 차려진다. 박 요리연구가는 여기에도 참여해 음식점의 요청을 반영했고, 영암읍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차림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이들 음식과 함께 지역 전통주와 곁들여 먹는 안주 대봉감 쿠스쿠스샐러드, 씨름관 맥적구이, 구름다리 타르트, 고구마채 쥬스티 4종도 개발했는데, 판매가 준비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단, 식재료 수급과 음식점의 사정에 따라 판매 음식은 제한될 수 있다. 영암군은 올해 7월 건설업 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는 대표 음식 개발에 함께 할 음식점을 공개 모집했다. 음식점의 의견을 수렴해 메뉴 개발을 완료한 후 지난 9월 전수교육을 실시해 조리법을 전파했다.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은 "지역의 재료를 써서 다양한 먹거리 수요를 충족하는 음식을 개발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미식 관광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영암군이 개발한 1. 장조림달걀밥 2. 무화과 샐러드 3. 어란파스타. <영암군 제공>

무안, 내년도 상·하수도 분야 국·도비 521억 확보

신규 4건·계속 11건 등

무안군은 12일 "2025년도 상·하수도 분야 사업비로 국·도비 521억원(신규 사업 4건 280억원, 계속사업 11건 28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안군은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현안 사업을 적극 건의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번 예산확보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어려운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무안·일로·청계배수지 비상공급시설 확충 사

업(총 210억원)과 삼향·청계농공단지 인근 하수관로 정비사업(총 189억원)은 2025년에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해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은 내년도에 준공되는 청계·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국·도비 예산 확보로 상·하수도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신명나게 돌아보세" 해남, 전통놀이 한마당

15일 군민광장서 강강술래 등

해남군이 늦가을 풍요로움이 가득한 전통놀이 한마당 공연으로 초대한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군민광장에서 해남 전통놀이와 읍면 풍물공연(사진) 등이 총망라된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공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강술래를 비롯해 문내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수영 부녀농요와 우수영 들소리를 차례로 선보인다. 전통 강강술래의 원형을 이어오고 있는 문내면 우수영강강술래보존회의 시연에 이어 명랑대첩축제 온겨레 강강술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땅골강강술래단, 동호인들이 꾸준한 연습을 함께해 오고 있는 해남문화



원 강강술래단 등의 보급형 강강술래 행사를 갖는다. 공연 참가자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50명이 해남배추로 만든 김장을 버무려 자매결연 지자체 등을 기쁘게 오후 1시부터 김치 버무림 <해남=박필용기자>

정재훈 "목포추모공원 직영 필요성 제기"

5분 발언서 민간위탁 부정 사례·편의성 우선 행정 지적

"시민의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포시의 책임입니다."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사진)이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2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화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4일장 또는 5일장을 치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시는 화장로 증설, 우선예약제 도입, 목포·신안 통합 추진을 통해 신안군민이 목포시 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며, 인근 지자체는 행정의 편의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 화장장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목포추모공원(승화원)에서도 민간위탁의 부정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리 감독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시의 재산을 민간위



탁이 아닌 직영 운영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을 예 시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서비스의 본래 취지에 맞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영 운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복지는 목포시의 책임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그는 "목포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완도 '해양치유 국제 심포지엄' 성료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 기념...국제적 연계 방안 등 논의

완도군이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해양치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해양치유 모델 발전과 국제적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안도걸 국회의원,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해양수산부·전남도 관계자, 이재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 해양치유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완도해양치유센터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 기념사, 해외 연사 초청 강연,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프란시 티바리 교수(인도 아우르베다 의사협회장)는 강연에서 인도의 아우르베다식 치유 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완도 해양치유와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해양치유 등을 제안했다. '이유르베다'란 고대 인도 힌두교의 대체 의학 체계로 오늘날에도 인도, 네팔과 스

리랑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법이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신우철 군수와 김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성시운 휴먼치유연구소장이 참여해 완도만의 해양치유 모델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충곤 박사는 독일 해양치유 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을 연계한 성공 사례, 프랑스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효과성 검증에 따른 높은 만족도 등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해외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완도 해양치유는 다양한 공공 치유시설과 테라피 제품, 치유 여행 패키지를 개발하며 해양치유 선도 지역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며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인근 숙박업 연계를 통한 중장기 치유객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해양치유를 선진국 사례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